

## <운동장>

A반 정지유

### S#1. 운동장 / PM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의 발소리와 웃음소리는 희미해지며 고요만이 남은 학교, 운동장 정자에 앉아있는 하늘. 맞은편에 있는 놀이터를 바라보며 짧은 한숨을 내쉬며 손목에 차고 있는 머리끈을 당겼다 놓는다.

하늘 : 하.....

### S#2. 운동장 / PM

[운동장 - 오후 (DAY 1)]

여느 때와 다름없이 비어 있는 정자에 앉아 이어폰을 착용하는 하늘. 후드집업에 하계 체육복 하의를 입고 있다. 이어폰을 뚫고 들려오는 사람들의 말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손목에 찬 머리끈을 튕기기 시작한다.

[운동장 - 오후 (DAY 2)]

같은 자세로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하늘. 동계 체육복 상의와 하계 체육복 하의를 혼용하여 입고 있는 하늘은 강한 햇살에 눈을 감고 있다. 모두가 떠난 운동장을 잠시 바라보다 이어폰을 꺼 노래를 듣는다. 달리기하던 미소가 일으킨 모래바람에 의해 나뭇구는 플라스틱 컵을 바라보다 시선을 거둔다.

[운동장 - 오후 (DAY 3)]

어제와 같은 자리에 회색 후드를 뒤집어쓴 채 앉아 있는 하늘. 날은 밝지만, 하늘의 표정은 어둡다. 하늘의 시선에 걸리는 바닥에 들고 있던 물을 내려놓고 운동장을 달리기 시작하는 미소. 미소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 하늘. 뛰고 있는 미소를 바라보다 이어폰을 낀다. 잠시 후 노래를 듣던 하늘 앞에 미소가 서있다. 시선이 마주칠 듯 말 듯 하자 하늘은 곧장 시선을 돌리고, 머리끈을 강하게 튕긴다.

### S#3. 운동장 / PM

운동장을 가로질러 걷다 풀린 운동화 끈에 걸려 휘청이는 하늘. 멀리서 그 모습을 본 미소는 움찔하지만 다가가지 못하고 멀어지는 하늘을 바라본다.

미소 : (터덜터덜 걸어가는 하늘의 뒷모습을 보다가) 예구.....

### S#4. 운동장 / PM

힘없이 운동장을 가로질러 걷던 하늘의 발에 무언가 차이다. 바닥을 바라보니 검은색 지갑이 떨어져 있었고, 멀리 걷고 있는 미소를 보고 한참을 망설이다 조금은 속도를 낸 걸음으로 미소에게 다가간다.

하늘 : (오른손으로 왼손 손등을 긁다가) 저..., 저기..., 이거

미소 : (화들짝 놀라 뒤를 바라보며) 어..., 제 거네요. 감사합니다.

하늘 : 네 그럼..., 안녕히계....

미소 : 저! 매번 여기 앉아 있던 분 맞죠?

하늘 : 아, 네 맞아요.

미소 : 여기 근처 학교 다니시는 거예요?

하늘 : (떨떠름한 표정으로) 네

미소 : ㅎㅎㅎ 왜 맨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구 기다리나?

하늘 : 아뇨 그건 아니고..., 그냥 앉아 있어요.

미소 : 오 글구나~ 갑자기 뭐 이런 걸 물어보나 싶죠. 그냥 매번 마주치니까  
뭔가 알 수 없는 친밀감이 들어서..., 미안해요....

하늘 : 네? 아녀요..., 저도 맨날 마주쳐서 말 한번 걸어보고 싶었어요....

미소 : 아 진짜요? 이름이 뭐예요?

하늘 : 하..늘이요.... 김하늘....

미소 : 이름 예뻐당~ 저는 미소예요. 전미소

하늘 : 아..., 네..., 그럼 이ㅇ....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미소는 하늘에게 두서없는 말들을 뱉었다.

미소 : 아! 나이가 어떻게 돼요? 고삼??

하늘 : 17살이요..., 미소...님은요,,, ?

미소 : 저는 20살이요. 같은 학교 졸업생이에요.

하늘 : 아 그래요,, ?

미소: 편하게 언니라 불러요

하늘 : (어색한 얼굴로) 아 네,

미소 : 아 근데 진짜 왜 맨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구 기다리는 것도 아니라 하고

하늘 : (손목을 어루만지며) 저는 그냥 아무도 없는 운동장을 바라보고 있는 게 좋아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아. 언니는요? 언니는 왜 뛰시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예요?

미소: 그냥 집에서 공부하다 보면 너무 답답해서~ 답답할 때 뛰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잡생각도 안 나고 체력도 좋아지고. 어머 근데 계속 여기 서서 얘기하고 있었네, 안 더워요?  
걸어가면서 얘기해요.

하늘 : (말없이 신발만 바라보다) 네...

미소: 고민이 많아 보이네....

하늘 : ㅎㅎ조금요....

미소 : 무슨 고민인지 물어봐도 돼요? 좀 그러면 말 안 해도 되구

하늘 : (2초 정적) 그냥.... 학교에 친구도 없고, 성적은 안 오르고.

미소 :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받아서 누구한테 다가가기도 어려워 하고

하늘 : 네? 그렇게 안 보이는데 ??

미소 : (웃다가) 그쵸 저도 작년까지는 생각도 못 했어요. 근데 졸업하고 알바하면서  
자의든 타의든 사람들이랑 계속 만나고 그러니까 점점 괜찮아지더라고요.  
하늘님도 먼저 다가가기도 어렵고 사람들을 대하기 힘들면 너무 애쓰지 말고,  
그냥 옆에만 있어 봐요. 옆에서 그냥 웃어보고.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 섞이는 것도  
앞으로는 힘들지 않을 거예요.

하늘 : 감사해요.... 되게 좋으신 분 같아요

미소 : 제가요? (장난스럽게 웃으며) 아닐 건데~

하늘 : 아니에요, 보통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런 말 해주기 쉽지 않잖아요

미소 : 그냥 나랑 비슷해 보여서 마음이 갔나 봐요.  
아 참... 그리고 저도... 머리끈처럼 그거 했었어요.  
손가락에 끼우고 당겼다 놓으면 괜찮아져서요.  
나중엔 그냥 손을 쥐는 것만으로도 괜찮아졌어요. ...혹시 그렇게 해볼래요?

잠시 고민하던 하늘은 고개를 작게 끄덕이고, 그 모습을 본 미소는 활짝 웃는다.

#### S#5. 운동장 / PM

구령대에 앉아 있는 하늘은 손목을 감싸고 있던 검정 머리끈을 손에 쥐고 있다. 하늘은 조용히 그것을 쥐었다 풀었다 한다. 조금 뒤, 운동장을 도착한 미소는 하늘을 보고 환하게 웃는다. 하늘도 미소를 보고 작게 손을 흔든다.

미소 : (두리번거리다 웃는다)

하늘 : (살짝 웃는다)

미소 : (두 팔을 위로 흔들며) 안녕!!

하늘 : (머리끈을 쥔 손을 들어 가볍게 흔든다.

하늘의 밝은 얼굴이 햇빛에 반짝인다. 미소는 작게 웃으며 운동장을 돈다.